

전문용어 조어 및 번역 방법론에 대한 시론*

이 현 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1. 머리말

전문어(langue spécialisée)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일반어와 대립되는 것으로서, 그 언어의 사용자가 전문인들로 제한되어 있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말한다. 그리고 전문용어(terminologie/terme)란 전문적 개념을 지칭하는 어휘 또는 어휘의 집합을 가리키며 전문어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전문인들은 자신의 활동영역 안에서 분명하고도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명확한 의사소통의 성패는 그 언어를 구성하는 전문용어와 표현 어구를 얼마나 정확히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위 정의에서 언급한 전문성, 특수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오히려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제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용어의 생산자, 즉 전문용어를 조어하고 활용하는 주체는 언어 전문가나 국어학자가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실제로, 전문용어가 생성되는 시점이 아니라 용어가 파급, 확산되고 난 이후에 국어학자에게 용어 감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맞춤법 등과 같은 어문규정의 준수

* 본 논문은 2008년과 2009년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외래 전문 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와 ‘전문 용어 정비 지침’ 사업에서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보완, 발전시킨 것임.

여부만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전문용어 조어 및 번역의 사례나 기준이 많지 않아 전문가 측에서나 국어학자 측에서나 모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용어는 해외로부터의 유입이 많은 어휘이자 그 유입 속도 및 해당 언어집단 내에서 정착과 확산의 속도가 빠른 단위이므로, 용어 유입의 초기에 올바른 조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유입되는 용어들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자칫 용어의 음차 형태가 양산되기도 하고, 전문용어 자체의 국제적 속성으로 인해 외국어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 사회가 지식사회로 나아갈수록 전문어와 일반어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일상 언어생활 속에 전문용어가 빈번히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은’ 전문용어의 사용은 우리말 어휘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올바른 전문용어 조어 및 번역에 대한 지침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우리말 어휘의 형태·통사적 구조에 맞지 않는 용어들이 출현하기도 하고 어문규정 즉, 맞춤법, 외래어 표기, 띄어쓰기, 사이시옷, 두음법칙 등이나 제반 규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UNESCO가 경고하듯이, 화자들이 전문지식을 모국어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 정보와 지식을 얻는 과정에 불평등함이 야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문용어가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 이는 일종의 전문용어로 인한 언어적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결과 실제 문맹이 아닌 기능적 문맹(functional illiteracy)이 생겨난다는 것이다.²⁾ 본고에서는 전문용어학의 이론과 번역의 유형론을 토대로 하여 전문용어 조어 및 번역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 기준에 제시된 전문용어 형성의 일반 원칙을 정리하고 3장에서는 전문용어의 속성상 외국으로부터의 유입이 상당한데, 이에 대한 번역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기준 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문용어 번역 및 형성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UNESCO (2005) *Guidelines for Terminology Policies*, p.5.

2. 전문용어 형성의 일반 원칙

1) 전문용어학적 관점에서 본 전문용어의 특징 및 형성 원칙

우선, 본 장에서는 기존의 전문용어 정비 기준, 특히 국제표준기구 ISO가 제시한 원칙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근거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전문용어학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던 이 관점은 몇몇 특정 과학, 기술 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이상적 원칙이라는 점과 전문용어의 언어적, 의미적 속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³⁾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전문용어의 표준화가 이 공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방향 역시 국제표준기구의 용어 통일화, 용어 일원화 원칙과 일맥상통하므로 전통적 표준화 원칙과 이론적 틀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전문용어학에서는 이 단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개념을 지칭하는가하는 어의(語意) 차원의 문제보다 개념과 개념체계가 미리 성립된 상태에서 그것을 어떠한 단어 즉, 어떤 용어 단위로 명명할 것인지를 보다 중요한 문제로 간주한다. 이러한 용어에 대한 개념의 우위성은 전문용어학이 채택한 가장 핵심적인 관점이며 이러한 관점은 용어 형성의 방법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아래에서는 용어의 특징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그것이 어떻게 용어의 명명절차, 용어의 형성과 관련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우선, 용어의 명명법은 언어기호와 개념 사이의 자의성보다 언어기호의 동기성, 즉 의미의 투명성에 중점을 둔다. 사실,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듯이 새로운 용어를 조어할 때에도 기존의 단어, 용어를 바탕으로 그 단위들을 조합하거나 생략하거나 또는 기존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주어진 단어를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차원이 아닌, 인간의 창조적이고 도 의식적인 언어행위의 차원을 언어이론에 접목시킨 부분으로써, 전문용어학

3) 국제표준기구ISO가 따르는 전문용어학의 관점을 전통적 관점, 또는 그 전문용어학의 창시자이자 ISO TC37(용어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Wüster의 이름을 따라 뷔스터 학파, 또는 비엔나 학파의 관점이라고 한다. Temmermann, R., Depecker, L, Gaudin, F. 등과 캐나다 학파라 불리는 용어학자들은 전통적 용어론의 대척점에서 이를 비판한 대표적 인물들이다.

및 전문용어 사전의 가장 특징적 속성이라 하겠다. 용어는 이미 지칭할 대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선택되는 것이며, 만들어진 용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쉽고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전통적 전문용어학은 용어의 의미, 즉 개념을 정의할 때 그것이 속하는 개념 총체와의 관련 하에 정의도록 한다. 하나의 용어 단위는 단독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언제나 그것이 속하는 의미 총체, 즉 학문분야, 활동분야 또는 기술 분야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전문용어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 속에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용어의 조어방식에도 반영되어서, 지칭할 대상이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망, 즉 유개념, 종개념, 동위개념들을 검토하고 이들이 조어진 방식과 가능한 한 통일되게 용어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⁴⁾

세 번째로 전통적 전문용어학에 따르면, 하나의 개념에 단 하나의 용어 명칭만이 주어져야 한다. 이 같은 용어와 개념 간의 일대일 대응 법칙은 용어의 다의성, 중의성을 배제하고 일의성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전통 용어학이 표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용어학의 관점에서 동형어(homonym)는 일반어에서의 동형어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어원이 같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전문분야에서 쓰이고 그 의미가 다를 경우, 동형어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핵’의 경우 물리학에서의 개념과 식물학에서의 개념이 다르므로 명칭과 개념 간의 일대일 대응성이 성립한다고 보고 동형어로 처리함으로써 용어의 중의성을 해소한다.

국제표준기구 ISO는 전문용어를 위한 기술위원회(TC37)를 두고 전문용어 정리 및 표준화를 위한 각종 규범집을 만들었는데, 그 중 가장 기본적인 전문용어 작업의 원리와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ISO 704:2009이다. 이 규범집에서는 전문용어 작업을 할 때 근간이 되는 용어학의 3대 구성요소 즉, 개념(concept), 정의(definition) 그리고 명칭(designation) 각각에 대해 정의하고, 올바른 전

4) 여기서 유개념이란 본 개념이 속해있는 상위 차원의 개념이며 종개념은 본 개념을 유개념으로 삼는 하위 차원의 개념이고 동위개념이란 본 개념과 유개념을 공유하고 같은 계열을 이루는 동일 차원의 개념을 말한다.

문용어 형성을 위한 7가지 기준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1) 동기성
- 2) 일관성
- 3) 적합성
- 4) 경제성
- 5) 파생성
- 6) 언어적 정확성
- 7) 모국어 선호⁵⁾

첫째, 동기성은 용어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 즉, 개념적 속성이 동기화되어 용어의 형태에 반영되어야 하기에 복합 용어 형태를 선호하되, 고유명사나 두음어를 이용한 명명방법은 개념을 파악하는 데 어려우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 일관성이란 상하위 관계나 계열체적 관계에 있는 용어들은 일관된 방식으로 조어하여 체계성을 유지해야 함을 말한다. 셋째, 적합성은 혼돈의 여지나 중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며 넷째, 경제성은 용어 사용의 정착을 위해서 그 형태가 간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첫째 조건인 동기성과 상충되기도 한다. 다섯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속성은 언어학적 기준으로 파생이 용이한 형태를 선호하고, 형태적, 음운적, 통사적 규칙을 지켜야 하며, 외국어 차용보다는 모국어로 조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표준기구 ISO의 7대 기준을 보완 심화하여 전문용어 관련 기관과 학자들이 용어 조어시 충족해야 할 기준들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카이스트의 한국전문용어공학센터(KORTERM)와 남북 용어 통일화 사업(리수락)에서 제시한 용어 형성의 원칙, 그리고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학술 전문용어 표준화위원회에서 정리한 기준 등이 있다. 원칙들의 세부사항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5) ISO 704 (2009: 38~41)

6) 전문용어 표준화 원칙의 세부 사항은 최기선(2007), 최기선 외(2005~2006), 국립국

	원칙	ISO	학총	KORTERM	리수락	김정우 ⁷⁾
용어학적 기준	일의성		0			
	동기화(투명성)	0	0		0	
	일관성	0	0	0	0	0
	적합성(중의성 배제)	0	0	0	0	0
	경제성	0	0	0		0
	타학문분야와 통일성			0		0
언어학적 기준	파생성	0			0	
	언어적 정확성	0	0		0	0
	사전 등재어		0	0		
	고빈도 어휘 선택			0		
	발음				0	0
번역학적 기준	통사결합의 적절성				0	
	원어와의 대응관계				0	
문화적 기준	음역의 일관성					0
	모국어 선호	0	0	0	0	
	쉬운 말			0	0	
	문화성				0	
	학문적 계승성				0	

이 기준들은 크게 개념과 전문지식의 체계 및 그 표상과 관련된 용어학적 관점과 언어 규칙에의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언어학적 관점, 국제적 차원에서 전문적, 학술적 개념을 소통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번역학적 관점 그리고 문화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단체의 원칙들은 우선, 국제표준기구가 제시한 기준들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으며, 언어적 정확성이나 파생성, 사전 등재어 선택 등의 언어학적 기준들도 비교적 공통되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적 정확성, 파생성, 통사 결합의 적절성과 같은 항목은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국어학적 문법과 규범의 나열이 아닌, 전문용어 특유의 통사 결합이나 조어의 규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한자어

어원(2007) 을 참고할 것.

7) 김정우(2003)에서 제시한 전문용어를 번역할 때 고려해야 하는 원칙들을 참고하였다.

조어가 풍부한 우리말 전문용어에서 파생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어형태론의 입장보다 훨씬 유동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용어의 번역과 관련한 기준은 미비한 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용어 생성의 많은 부분이 외래 원어 용어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용어 번역에 대한 지침과 유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KORTERM에서는 용어를 번역할 때 직역 하되, 원어용어와 우리말 용어 사이에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김정우(2003)는 음역한 형태가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전문용어의 사용은 국내 학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소통의 장을 향시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개념의 상호 대응 목록이 올바르게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 국제표준기구 ISO의 전문용어 형성 세칙

전문용어도 하나의 언어단위이므로, 개념적이고 지시적인 속성을 언어화하는 실제적인 용어 형성 절차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 본 국제표준기구ISO의 용어 형성 원리나 용어학적 관점들은 형태, 통사, 의미에 대한 언어별 고유의 법칙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ISO 704 규범집의 부록을 통해 각국의 언어에 적절한 용어 생성 절차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언어는 고유의 파생규칙과 용어의 형태(단일어, 합성어, 여러 단어의 나열, 관용어구 등)를 규정하는 법칙이 있으므로 위 사례를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세 가지 용어 생성 방식은 여러 언어에 적용가능하다고 본 규정집(2009:51~55)에서 제시한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SO 704 지침의 특징은 용어 조어와 용어 번역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용어학의 명칭론적 절차에 의거하였다는 점인데, 즉, 명명할 대상이 이미 존재하고 그 개념에 어떠한 기표를 부여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 새로운 형식 생성 : 파생어, 복합어(구), 줄임말 만들기
- (2) 기존의 형식 이용 : 일상어휘의 용어화, 타분야 용어의 의미 변환

(3) 외국어에서 차용 : 음차 또는 직역

아래에서는 ISO 704에서 제시한 방법과 영어 또는 프랑스어 예시를 참고하여 우리말 전문용어에 대응시켜보고자 한다.

(1) 새로운 형식 생성

새로운 형식을 생성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휘 단위를 만들어냄을 뜻하는데, ISO에 따르면 파생어, 복합어, 축약어 등을 만드는 것 이에 해당한다.⁸⁾

(가) 파생 용어 형성

ISO의 규범집은 일반어에서의 파생법과 동일한 규칙에 따른 전문용어를 예로 들고 있다.

<예:en> ⁹⁾			
phosphor	+	-ous	→ phosphorous
de-	+	toxi- + -cation	→ detoxication

우리말 전문용어 역시 대다수가 일반어의 파생규칙을 따르고 있다.

(1.a) 접사(한자어) 첨가

- ozonization 오존화
- dehydrogenation 탈수소
- antipornography 반포르노그래피

(1.b) 접사(고유어) 첨가

- acceptor 받개
- adapter 잇개

8) 본고에서 인용한 우리말 예시는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표준 학술 전문용어' 목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9) ISO 704 (2009: 51)

true electric current 참전류

(1.c) 명사형 어미

abrasion 벗겨짐

scattering 흩뜨림

molting 껍질벗기

tailing 꼬리끝기

하지만, 전문용어에서 접사의 쓰임은 해당 분야에 따라 특수한 의미를 띠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에서 접사‘-기’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 쓰이는데, ‘측정기(測程器)’, ‘집광기(集光器)’ 등과 같은 기구에는 ‘그릇 기(器)’를, ‘굴착기(掘鑿機)’, ‘절삭기(切削機)’ 등과 같이 동력에 의한 기계의 경우에는 ‘틀 기(機)’를 사용한다. 또한 특정 물질의 양에 대한 그 물질의 양의 비에는 ‘비(比)’를, 두 개의 양의 비로 나타내어지는 물질정수는 ‘율/률(率)’로 쓴다. (질량비, 혼합비; 전도율, 흡수율, 압축률 등) 의학 분야도 자주 사용하고 유사한 접사 및 일음절 한자어에 대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각 분야별로 생산성이 높은 비자립적 요소들에 대한 개념 정리는 필수적인 작업일 것이다.

(나) 복합 용어 형성

존재하는 단어 또는 단어의 구성요소들의 조합으로 새로운 용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두 개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가 하나의 유일한 개념을 지칭할 때 복합 용어라 칭한다.(ISO704(2009:51) 전문용어에서는 일상어보다 더 길이가 긴 복합어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동기성을 중시하는 용어 형태로 인해 국제적으로 두루 발견되는 현상이며 그 결과 국제표준기구에서도 일반 합성어뿐 아니라 관용어구, 결합어(mots-valise)까지 복합 용어의 단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결합어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의 조합 중에서 하나 이상의 구성 단어가 자름말(truncation)의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한다.

<예:en> ¹⁰⁾	
복합 용어	<붙임표로 연결된 형태>: composer-conductor, high definition television <붙여 쓴 형태>: downsizing, outflow <병치>: member country, information highway
성구	video-on-demand
결합어	(i) information + entertainment → infotainment (ii) cybernetics-organism → cyborg (iii) cybernetics + space → cyberspace (iv) quasi + stellar object → quasar

배선미·시정곤(2004:199~200)은 물리, 화학, 생물, 의학분야의 용어 형태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합성명사가 가장 많고, 단일명사, 파생어의 순으로 용어 조어 양식이 나타남을 밝혔다. 이는 비단 위의 네 분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합성은 용어의 동기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식임에 틀림없다. 우리말의 경우, [명사+명사]의 형태가 가장 빈번하지만, 특히 고유어를 통한 용어 형성이 자리를 잡은 분야에서는 보다 다양한 합성어 형태가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우리말 복합 용어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합성 용어와 구 구성 용어 그리고 합성과 파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 용어 등이다. 위 예 중 결합어는 우리말에서 따로 취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생화학’(생물+화학)이나 ‘굴절파’(굴절+파장), ‘입사각’(입사+각도) 등에서 ‘생’, ‘파’, ‘각’이 ‘생물’, ‘파장’, ‘각도’의 자름말이라고 간주할 수 없으며, 한자어의 의미적 자립성으로 인한 합성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사실 우리말에서 자름말에 입각한 결합어의 예는 극히 특수한 용례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경제성 및 간결성을 추구하는 전문 용어의 형성에 있어 일상 언어에서 발견되지 않는 결합어의 예가 일부 분야에서 종종 만들어진다. 아래서 이에 대한 예를 살펴보겠다. 우리말 복합 용어의 용례는 아래와 같다.

10) ISO 704 (2009: 52)

ㄱ. 합성 용어 형성

(2.a) 명사 + 명사 +...

- A +B 구성인 경우, 대부분 B가 여기 A는 한정어

수리 방정식, 흡수 전류, 아날로그 컴퓨터(analogue computer), 류마티스 열(rheumatic fever)

- A+B+C 구성의 경우, (A+B)+C 또는 A+(B+C)

(A+B)+C : (위상_차) 현미경, (확률 밀도) 함수

A+(B+C) : 처리 (제어 시스템), 단백질 (인산화 효소), 필수 (지방 산), 어둠 (동무 별)¹¹⁾

- A+B+C+D+.. 등의 복잡한 구성의 경우, 여러 가지 조합 가능성이 있음:
(A+B)+(C+D),(A+B+C)+D,A+(B+C)+D, A+(B+C)+(D+E)...

[[((단백질 대사) (회전))-율], [(중합 효소) (연쇄 반응)], [(공기압-식) (제어-기)], [평균 (순방향 전류) 정격]

(2.b) 동사 관형형 + 명사

먹는 약, 죽은 시간, 찌그러진 우물[물리용어]

(2.c) 형용사 관형형 + 명사

작은창자, 큰창자, 빼뚱코, 풍요로운 노동자, 남은 저장

(2.d) 동사 명사형 + 명사

슬림힘(편향력), 퍼짐 속도, 흩어지기 효과, 되비침면

(2.e) 형용사 명사형 + 명사

얇은 감염, 가려움증

(2.f) 명사 + 동사 명사형

급속 거르기[의학], 꼬리 끌기

11) '제품 수명 주기', '심장 동맥 경화증', '이차 확인 수술' 등과 같이 분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기업 수명 주기', '산업 수명 주기' 등의 계열어 존재에 의하면 '제품 (수명 주기)'로 분석되나 제품 수명의 주기로 해석될 수도 있고 '심장 동맥 경화증'은 '동맥경화증'이라는 용어의 존재에 의해 '심장 (동맥 경화증)'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심장 동맥 경색증', '심장 동맥 병', '심장 동맥 순환' 등의 용어와 관련하면 '심장 동맥' 경화증'으로 분석가능하다. '이차 확인 수술' 역시 '(이차 확인) 수술'인지 '이차 (확인 수술)'인지 구분이 모호하다.

(2.g) 명사 + 형용사 명사형

표면 거칠기, 시멘트 질기

(2.h) 관형사 + 명사

여리고환중, 새소뇌

(2.i) 부사 + 동사 명사형

높이뛰기, 멀리뛰기

(2.j) 결합어

거꿀상관, 넙다리뼈, 씻가름

물리학에서 ‘역(逆)’에 해당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거꿀’로 치환하였다. 본래 ‘거꾸로 상관’이 맞는 표현이지만,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줄임말을 새로 만들어내었다. 일반 신조어의 ‘먹거리(←먹을거리)’와 같이 비통사적 결합 유형이 전문용어에서도 보이는데, 예를 들어 ‘넙다리(←넓적다리[의학])’, ‘씻가름(←씻고 가름[치의학])’ 등이 있다.

ㄴ. 구 구성 용어 형성

(3.a) 조사 ‘~의’, ‘~에 대한’, ‘~로 인한’ 등의 사용 :

의식의 변화 상태, 목록에 대한 태도, 보행기로 인한 손상 adaptation of eye 눈의 명암적응, advancement of learning 학문의 진보, additive inverse 덧셈에 관한 역원, appeal to illicit authority 부적절한 권위어의 호소

(3.b) ‘-은/-ㄴ’의 관형형 사용 :

증상이 없는 보균자, 지도자 없는 사회, 청소년기에 한정된 비행

(3.c) ‘명사+동사의 명사형’(목적어-술어 관계), ‘부사+동사의 명사형’ 등의 구문 :

풍선 부풀리기, 미리 안내함

(3.d) ‘및’, ‘와/과’ 등의 사용 :

질병조절 및 예방센터

(다) 줄임말

새로운 형식을 형성하는 방식 중 다양한 줄임말의 형태가 존재한다. 전문용어의 속성 중 경제성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이므로 특히 입말 위주의 현장이나 업계에서 빈번히 쓰이는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서양어에서 구분하는 축약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예:en/ft> ¹²⁾	
단축어 (short form)	Groupe intergouvernemental des Vingt-quatre sur les affaires monétaires mondiales → Groupe des Vingt-quatre
자름말 (truncation)	parachute → chute influenza → flu
축약어 (abbreviation)	page → p et cetera → etc.
두음절어 (sigle; initial letter; initialism)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 → S.N.C.F. United Nations → U.N. personal computer → PC
에크로님 (acronym)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NATO Computer Aided Design → CAD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 laser radio detecting and ranging → radar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 nasdaq

한국어의 경우에는 초성(자음)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어가 없으므로, 각 단어의 머릿글자를 부르는 두음절어와 약어를 한 단어처럼 이어서 발음하는 에크로님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각 단어의 머리음을 취하는 두음절어와 머리음이 아닌 다른 위치의 음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선택적 축약어의 경우, 그리고 합성

12) ISO 704 (2009: 53)

어의 구성 단어 중 앞이나 뒷부분만을 취하는 자름말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겠다.¹³⁾

(4.a) 두음절어 ('문광부' 류)

- 디지털 카메라 → 디카
- 원자폭탄 → 원폭 (원폭 투하)
- 노동조합 → 노조 (노조원, 노조위원장)
- 사회구성체론 → 사구체론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 민예총

(4.b) 자름말 ('교육부' 류)

- 증권거래소 → 거래소
- 국립국어원 → 국어원

자름말의 또 다른 예로 다소 긴 외래어를 줄여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부분 원어인 화자는 사용하지 않는 외래어 표현들에 해당하며, 일본식 영어 발음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¹⁴⁾

- 에어 컨디셔너 → 에어컨
- 코디네이터 → 코디

(4.c) 선택적 축약어

- 학생회관 → 학관
- 학사경고 → 학교

13) 가신제도 → 가신제 절대압력 → 절대압 등에서 보이는 생략 현상은 줄임말의 예에서 제외한다.

14) 물론, 매스 커뮤니케이션 → 매스컴, 애드 리비툼 → 애드 립처럼 원어에서 줄여 부르는 말들도 있다. 인디 밴드(indie band)는 independent band의 자름말로서 영미권에서 사용되지만, 실제 영어 화자들은 indie rock, indie rock group 등을 훨씬 선호하며, 우리나라에서처럼 굳어진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줄임말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며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그 출현이 미비한 편이다. 이는 표준화된 용어 목록이 줄임말, 생략어의 형태보다는 완전형을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현재 전문용어에서는 오히려 외국어 줄임말을 그대로 음차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우리말 용어와 합성하는 경우가 많다.¹⁵⁾ 하지만 용어를 학술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현장어, 직업어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면 줄임말의 표본은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기존의 형식 이용

기존의 어휘를 이용하여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전환 (conversion)¹⁶⁾, 전문용어화(terminologisation), 타분야 용어의 차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어휘의 형식(기표)은 보존하고 그 내용(기의)만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써, 언어의 경제성에 입각한 절차라 볼 수 있다. 규범론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동형어(homonym)를 양산하여 용어 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지만, 기존에 알고 있는 어휘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념의 이해도를 높여주는 인지적 효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용어 생산 방식을 통해 한편으로는 전문어와 일반어 사이의 경계가, 다른 한편으로는 각 전문분야 간의 경계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기도 하다.

(가) 전환(conversion)

전환의 경우, 기존 단어의 품사를 변화하여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en>¹⁷⁾

수학 : constant (명) → constant (명)

우리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부사를 명사로 전이하여 합성 용어를 만들어내

- 15) 'ANFO폭약(ANFO: ammonium nitrate fuel oil), 'EDP회계' (EDP: electronic data processing), 'FF방식(FF: front engine front driver) 등.
- 16) 전환이란 단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품사만 바꾸거나 명사의 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의 *devenir* 는 '(~이/가) 되다' 라는 뜻의 동사이지만, 철학 분야에서 정관사를 붙여 (*le devenir*) 명사로 사용하고 있다.
- 17) ISO 704 (2009: 53~54)

기도 한다.

- (5) 뽀족[뽀] → [뽀]: 뽀족공포증, 뽀족사마귀, 뽀족머리증
 곱들[곱] → [곱]: 항(抗)곱들운동

(나) 전문용어화(terminologisation)

전문용어화란 일반 언어의 단어나 표현이 전문어의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화되는 절차를 일컫는다.¹⁸⁾

<예:en/fr>¹⁹⁾
 circuit
 일반어 : 특정 장소에 이르기 위해 이동하는 길 (순회)
 전기 분야 : 전류가 순환할 수 있는 장치나 공간의 집합 (회로)

일반 어휘가 전문용어로 변환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어휘 자체가 다의어이므로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 해당 전문영역에 적용시켜 용어화하는 과정이고 둘째는 일반 어휘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전이시키는 경우이다.

(6.a) 다의어의 전문화

전개[수학] : 단항식과 다항식 또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실제로 곱셈을 실행하여 단항식의 대수합의 꼴로 써내려가는 것 [두산백과]

전개[연극] : 플롯 구성에서 피라미드 구조의 상승부 [두산백과]

전개[화학] :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동상의 흐름과 함께 시료성분이 고정상 위를 이동하면서 분리되어 나가는 과정. [화학용어사전, 화학용어사전편찬회]

전개[컴퓨터] : 하나의 통신로에 의해 통보 입력 단말기에 접속되어 있는 정보원에서 특정한 통보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의 통보 입력 단말기에서 어떤 정보가 발생하는 조건부 엔트로피.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18) 전문용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빈번히 쓰임과 동시에 전문용어화의 반대 절차 즉, 전문용어의 일상어휘화(lexicalization)의 예도 빈번해졌다.

(ex.) 임계점 (공학용어) --> '한계점'의 뜻

19) ISO 704 (2009: 54)

전개[지질학] : 주로 지진과탐사의 반사법에 사용하는 용어로 측선상의 수진점의 배치 및 그 폭발점의 위치관계를 말한다. [광물자원용어사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전개[토목공학] : 트래버스 측량에서 기준으로 삼은 직각 좌표계 위에 각 측점을 그리는 것. [토목용어사전, 토목관련용어편찬위원회]

(6.b) 일반 어휘의 은유적 전이

개미(곤충/소액투자자), 바늘(needle/pointer)

(다) 타 분야에서 차용²⁰⁾

타 분야에서 용어를 차용하는 것을 내적 차용이라고도 부르는데, 동일한 언어 내에서 한 분야의 용어가 다른 분야의 새로운 개념에 적용될 때를 일컫는다.²¹⁾ 일반적으로 두 분야의 개념은 그 내포적 의미를 구성하는 자질이 유추(analogy)또는 유사성을 통해 대응되므로 이를 분야 간 은유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7) 동위성(isotopy) : 화학 용어 --> 언어학 용어

북극, 남극 : 지리 용어 --> 전기, 전자 용어

(3) 외국어에서 차용

오늘날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용어 형성의 방법으로써, 다른 언어에 존재하고 있는 용어를 참조하는 방법, 즉 번역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앞서

20) ISO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문어 안에서의 의미 전이 현상도 기존의 형식을 이용하는 용어 형성방식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환유에 따른 일반적 현상이라 생각되어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고자 한다.

<예:fr> (ISO 704: 35)	
écran (screen)	
구체 :	정보가 표시되는 컴퓨터 모니터의 일부
추상 :	컴퓨터 화면 위에 나타나는 정보의 집합
<예:ko>	
춤 :	구체물(렌즈), 행위(피사체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냄)

21) 이는 다른 언어에서 용어의 형태를 빌어오는 외적 차용과 구분된다.

언급했듯이, 전문용어나 전문적인 개념은 빠른 속도로 국경을 넘어 전파되므로 많은 용어들이 번역의 방법에 의존하게 되는데, 용어의 유입속도가 빠른 영역일수록 외국어, 특히 영어를 직접적으로 차용(borrowing)하는 빈도가 높으며, 그 외에 외국어 용어의 의미를 그대로 전사(calque)하는 직역의 방식이 전문용어 번역에서 가장 다수를 이루고 있다.

(가) 외국어 직접 차용(음역 또는 음차)

언어 안에 어떤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가 없을 때 다른 언어에 존재하는 용어를 그대로 도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입되는 용어의 언어를 1차 언어, 차용하는 언어를 2차 언어라 할 때, 서양어의 경우 그 용어의 발음이나 철자, 강세 등이 2차 언어로 변환된 후 달라질 수 있다. 서양어의 경우, 소리뿐 아니라 철자까지 차용하므로 ‘음차’라는 용어보다는 ‘직접 차용’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지만, 우리말의 경우 이를 ‘음역’ 또는 ‘음차’에 대응시키도록 하겠다.

<예:ft>22)	프랑스어	kolkhoze(집단착취),
러시아어 kolkhoz, tchernoziom	tchernoziom(척박한 검은 땅)	
일본어 kamikaze	프랑스어 kamikaze(자살비행)	
스페인어 corrida	프랑스어 corrida(투우)	
독일어 Krach	프랑스어 krach[krak](은행파산)	

(나) 의미 전사(직역 또는 축자 번역)

의미 전사는 외국어 용어의 형태 단위들을 번역하여 새로운 용어를 생성하는 방법을 말하며 번역 방법론 중 직역 또는 축자 번역에 해당한다.

<예>23)	
영어 long-term storage → 프랑스어 stockage à long terme	
영어 heavy water → 프랑스어 eau lourde → 한국어 ‘중수(重水)’	

일반적으로 용어집이라 제목 붙은 사전 유형을 살펴보면, 외국어 원어 용어(대부분 영어 용어)와 그에 대한 한국어 용어를 대비시켜 놓은 목록을 알파벳

22) ISO 704 (2009: 36)

23) ISO 704 (2009: 55)

순, 가다나 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뜻풀이가 수록된 일반적인 사전 형식보다 용어집, 술어집의 형태가 전문분야에서 활발히 출간되는 것은 그만큼 전문용어가 국제적 성향이 강하다는 증거이자, 외국어의 수입이 많은 어휘군이라는 의미라고도 하겠다.

사헤르(Sager, J., 1990:82~87)는 일차 용어 형성과 이차 용어 형성을 구분하여, 새로운 개념의 발견이나 개발과 동시에 전문가 집단이 명명하는 과정을 일차 용어 형성이라 하고 개념과 용어가 외국으로부터 동시에 유입되어 이를 자국어화하는 작업을 이차 용어 형성이라 하였다. 사헤르는 이차 용어 형성 과정에서 타언어의 영향으로 언어표현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언어계획청의 설립과 자국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사헤르의 이러한 입장은 이차 용어 형성이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언어 개발 계획이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증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의 시각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차 용어 형성을 개도국에, 일차 용어 형성을 개발된 산업국에 연관시키는 사헤르의 구분법은 오늘날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두 과정이 모든 언어사회에서 동시에 일어나되 전문적 복잡성이나 추상성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일차 용어 형성의 전통과 이차 용어 형성의 경험을 일관되게 대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앞에서 국제표준기구가 제시한 용어 형식 형성의 방법론은 일차/이차 용어 형성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우선 우리말에서 보이는 여러 용어 형성 절차 중 특히 이차 용어 형성의 유형을 나열해 본 후 용어학적 원리를 반영한 용어 조어 및 번역 지침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3. 외래 전문용어 번역 유형 분석

김정우(2003: 28)는 문학적인 가치나 문체, 리듬, 뉘앙스와 같이 다루기 힘든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자연과학 텍스트의 번역이 문학 작품의 번역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작업이라 보았으며 그 번역은 객관적 관점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번역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연과학 이외의 분야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입장은 전문어 번역에 대체로 통용되는 시각이다. 특히 뷔스터(Wüster, E.), 롱도(Rondeau, G.) 등이 개념과 명칭 사이의 일대일 대응성을 용어의 특징으로 규정한 데에 따라 번역의 방법론 역시 원어 용어를 개념어로 설정하고 그 구성요소들을 투명하게 축자 번역하는 것을 가장 적절한 번역 방식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각 언어의 학문적 발전 배경과 문화가 서로 다르고 언어마다 개념적 등가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용어의 번역이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아른츠(Arntz, R. 1993: 13-16)는 전문용어에서 두 언어 사이에 개념적 등가가 완전히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 등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설명하면서 등가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의 'gendarme'는 불한사전에 일반적으로 '헌병'이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부분적 등가어로서 우리나라의 헌병과는 그 역할이 일부만 같을 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담당하는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두 언어의 용어 간에 등가가 완전히 성립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사이에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대다(多) 대응 또는 다(多)대다(多) 대응이 존재한다. 아른츠는 빠른 속도로 발전한 분야일수록 용어의 다대다 대응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독일어의 personenbezogene Daten, personenbezogene Informationen, Individualinformationen, Individualdaten, persönliche Daten, private Daten 등과 이에 대응되는 프랑스어의 données nominatives, informations nominatives, données personnelles, informations personnelles이 다대다 대응의 예이다. 우리말 또한 '개인정보', '신상정보' 등 한 개 이상의 용어에 대응되고 있다.

해외의 많은 지침에서 전문용어의 번역 방법으로 직역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역, 의역 등 여러 방식으로 용어가 형성되고 있다. 아래 절에서는 우리말 전문용어 번역의 현황을 일별하기 위해 번역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음운 차용, 문자 차용, 의미 차용(직역, 의역), 비유적 용어 생성, 혼합 번역 등으로 나누고 실제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음운 차용

(1) 외래어 표기법과 일반적 음역

일반적으로 음역이라 하면 외국어 용어를 그대로 그 음에 따라 외래어 표기법에 맞춰 표기한 것을 말한다. 우리말로 의미전달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우리말에 대응되는 어휘가 없을 때 외래 용어를 음역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화학명(‘페놀’), 효소명(‘락타아제’), 단위명(‘와트’) 등과 같은 명칭은 음역의 형태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외래 용어의 소리를 차용해 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나라 말의 해당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는 것이 정석이지만, 여러 형태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도 많고, 또 오용례가 더 자주 쓰이거나 토착화한 경우도 있다.

(i)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음운 차용

multidisc brake	멀티디스크 브레이크 (영어 [기계])
épée	에페 (프랑스어 [펜싱])
Furiant	푸리안트 (독일어 [음악])
forte	포르테 (이탈리아어 [음악])
bandoneón	반도네온 (에스파냐어 [음악])

(ii) 여러 형태의 혼용 또는 오용의 경우

fiber	화이버, 하이바, 화이바, 파이버
liposome	리포솜, 리포솜
aerosol	에어로졸, 에어로솔, 에어졸
Poisson's ratio	포아송 비, 포아송 비, 푸아송 비
ascorbic acid	아스코르빈산,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빅산
implant	임플란트, 임프란트

이같이 여러 형태가 혼재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학계 용어가 다르거나, 학계 안에서 정비가 되지 않아 혼용되거나 표준용어의 홍보가 불충분하거나 화자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외에, 동일한 영어 단어에 대해 개념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음역을 달리 한 예가 예외적이지만 존재한다.

- shot : 샷 [영화] vs 샷 [골프]
- dot : 도트 [기계] vs 닷 [컴퓨터]
- type : 타이프 [타자기] vs 타입 (일상)
- cut : 커트 [운동] vs 컷 [영화]

하지만 다음과 같이 동일한 발음의 연속체에 대해 서로 다른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한 것은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 doublet /dʌblət/ : 더블릿 vs triplet /trɪplət/ : 트리플렛
- cutlet /kʌtlət/ : 커틀릿 vs omelet /ɑ:mlet/ : 오믈렛
- piston /pɪstən/ : 피스톤 vs melton /méltn/ : 멜턴

(2) 원어 약자를 음역한 경우

원어 약자를 음역할 때는 그것이 본래 원어에서 두음어인지 또는 애크로님인지 판별한 후 음을 옮겨야 할 것이다.

(i) 두음어 음역

- American National Standard 에이엔에스
- American National Standard contral character 에스엔에스 제어문자
- semicustom large-scale integrated circuit 세미커스텀 엘에스아이
- MICR code 엠아이시아르 코드

(ii) 애크로님 음역

- character outline limits 콜
- character and pattern telephone access information network 캡틴
- ASCII character 아스키 문자
- COBOL character set 코볼 문자 집합

(3) 제한적 음역

원어를 음운 차용하는데 그 구성 요소 중 한 개 이상을 생략하는 경우이다. 길이 상의 부담이나 부차적이거나 당연한 정보이므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single lens reflex camera	싱글 렌즈 리플렉스
driver circuit	드라이버 / 구동회로
ISO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이소 코드
Zone Improvement Plan code	집 코드

(4) 변형된 음역

(i) 원어에서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인데, 한 단어처럼 만들어 쓰는 경우

air conditioner	에어컨
mass communication	매스컴

(ii) 원어가 ‘형용사+명사’ 조합인데, ‘명사+명사’로 음차하는 경우, 형용사형을 명사로 번역한 경우

spanish skirt	스페인 스커트 [의상]
viral marketing	바이러스 마케팅 [산업공학]
virus infection	바이러스 감염 [의학/컴퓨터학]

2) 문자 차용

한자어권 나라의 용어를 가져와 우리식 한자 발음으로 표기한 경우를 말한다. 일본을 통해 들어온 모든 전문용어가 여기 해당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개념과 관련한 용어만 대상으로 삼는다.

天下爲公	tianxia wei gong	천하위공	[철학]
毛澤東		모택동	[동양사]

3) 의미 차용

(1) 직역

원어가 단말어이든 파생어이든 합성어이든 의미단위 하나하나를 그대로 직역, 축자 번역하여 우리말 용어로 만든 경우를 말한다. 또한 우리말로서의 결과물이 비유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원어가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며 그것을 축자 번역한 경우 직역으로 간주한다. 즉, window를 ‘창’으로 번역했을 때 이는 비유적 번역이 아닌, 직역에 해당한다.

① 원어가 파생어일 경우

(i) 원어 파생어 → 한국어 파생어

making → 만들기
 donner → 주개

(ii) 원어 파생어 → 한국어 비자립단위

meta-decision making → 초 의사 결정
 characterlization → 성격화

(iii) 원어 파생어 → 한국어 자립단위

making → 결정, 조성

② 원어가 합성어일 경우

(i) 한국어 자립적 단위들의 조합 (‘단어+단어+...’)

fixed ratio 고정 비율
 group decision making 집단 의사결정
 simultaneous motion cycle chart 동시 동작 주기 도표

circuit pathway	회로경로
circuit schedule	회로목록
logicql circuit	논리회로
color killer circuit	색 소거 회로
open circuit	개방회로

(ii) 자립적 단위와 비자립적 단위의 조합 ('단어+비자립적 일음절 한자어', '단어+접사' 등)

ratio of advantage	이득률
account of ventilation	환기량
vibrator	진동기
base pay	기본급
base map	기초도
base rate	기저율
national base map	국가 기본도
base rate	기준률; 기저율
base form	기저형; 기본형

(iii) 한자어 조합을 통한 자립적·독립적인 단위 구성. 일반적으로 우리말에 존재하는 단어와 대응된다.

interest rate	금리
exchange rate	환율
law-making treaties	입법조약
decision-making institution	의결기관
activated charcoal	활성탄
tax base	세원
leaf base	엽각

<어색한 경우>

abbreviation of nature	자연의 줄임
adapted movement education	변형 움직임 교육
posture body	체위
temperature body	체온
earthly body	생신

(iv) 구로 번역 (~의, 상(에서)의, 하(에서)의, -을/-르, 는/-니 등)
 meditated class locations 매개된 계급위치
 middle class radicalism 중간계급의 급진주의
 respectable class 존경받는 계급

③ 원어가 구 구성일 경우

(i) 구로 번역 (~의, 상(에서)의, 하(에서)의, -을/-르, 는/-니 등)
 decision making under certainty 확실성하의 의사결정[경영학]
 decision making under risk 위험하의 의사결정[경영학]
 decision making under uncertainty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경영학]
 armed conflict not of international character 국제적 성질을 갖지 않는
 무력충돌

<어색한 경우>

context-free grammar 문맥 자유로운 문법

(ii) 합성어로 번역

base of taxation	과세표준
education in the revolutionary base areas	혁명근거지교육
base-line of behavior	행동기준선
height of cloud base	구름밑면고도
base of skull	머리뼈바닥, 두개저

base of cloud	운저
base of support	기저면
theory of oneness in knowledge and behavior	지행합일설
dualism of body and soul	심신이원론
block and tackle	도르래 장치

〈어색한 경우〉

context-free grammar 문맥 자유 문법

④ 원어가 그리스·라틴 어원으로 조합된 신용어일 경우
원어가 그리스·라틴 어원으로 새로 만든 용어이고, 그 어원을 따져서 한국어 용어 조어에 반영한 경우이다.

- i) 한자어 조합을 통한 용어 생성 :
corpus 자료체
- ii) 고유어를 이용한 용어 생성 :
corpus 말뭉치

(2) 의역

① 제한적 의미 차용

아래에 살펴볼 환언적 번역과 달리 원어 용어에 존재하는 구성요소 중 의미 전달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번역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원어가 세 개 이상의 단어로 된 합성어인데, 이 중 둘 또는 몇 단어만 선택하여 의미 차용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번역되지 않은 요소는 문맥 상 충분히 유추할 수 있거나 원어 용어 자체가 개념반복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simultaneous and combined motion 복합동작 [산업공학]

<u>abbreviated input for frequently used word</u>	속어 입력
<u>adapted physical education</u>	특수체육
<u>allograft rejection</u>	거부반응
<u>amebic liver abscess</u>	간농양
<u>deductive question-answering system</u>	연역적 질문-응답
<u>arpeggiated ascent</u>	시작분산화음화

② 환언적 번역

환언적 번역은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두 언어의 용어 간에 단어 간 대응관계를 찾아볼 수 있되, 이에 덧붙여 개념을 잘 드러내기 위해 원어 용어에는 없는 단어를 첨부하여 부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둘째로는 원어의 축자 의미에서 벗어나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단어 간 대응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원어 용어가 일상어휘로 되어있거나 비유법을 사용한 경우 이를 학술적인 우리말 용어로 풀어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환언적 번역은 지나치게 용어의 길이를 길게 만들기도 한다.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방지조약
abilities-to-skill transfer	운동능력-기능간 전이
mergers and acquisition	기업인수합병
making	발생술 [의학]
base rate	기준대출금리
wave base	파랑작용 한계심도
treasury bond	재무성 장기채권
bond discount	사채할인발행차금
bond premium	사채할증발행차금
bond investment trust	공사채형 투자신탁
free-cell information	세포자유생성론

ogive	누적도수분포도 [수학]
built up area	연속적 시가지 [사회학]
product form queueing network	곱의 형태 해를 갖는 대기행렬 네트워크
base projection	두 개저방사선촬영술
block quota	해역별 기간별 어획할당량
excoriation	줄까짐(찰과상)
cell Purkinje	심장전도근육세포
cell Schwann	말이집세포 (슈반세포)
cell Sertoli	버팀세포 (세르톨리세포)
multiple data base	분산

4) 비유적 번역

다소간 전문적인 원어 용어에 대해서 비유의 방식을 통해 한국어 용어를 만드는 경우이다. 즉, 환유, 은유 등 비유에 의한 의역, 일상어휘를 이용한 의역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선택적으로 복합어의 일부분만 의역하고 나머지 단어는 아예 번역을 생략해 버리는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at @	골뱅이
radius	노뼈 [의학]
ulna	자뼈 [의학]
cell Purkinje	조롱박세포
mastoid aircell	꼭지별집 [치의학]

4. 외래 전문용어 번역 방법론 제안

앞에서 살펴 본 국제표준기구의 전문용어 조어 원리 및 세칙, 그리고 우리말

번역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전문용어의 번역 원리는 전문용어학에 근거한 용어의 속성을 반영하되 대상언어의 형태, 의미, 화용적 특성도 반영하여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전문용어 형성 원리에 입각한 번역 기준

(1) 전문용어는 개념을 투명하게 반영해야 한다.

즉, 용어는 개념적 관계망을 반영해야 한다. 즉, 새로운 개념을 명명할 때 그 개념과 연관된 기존의 다른 개념의 명칭을 우선적으로 참고한다. 그리고 원어 용어가 개념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조어되었는데, 이를 번역으로 잘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한 개념적 계열관계를 보이는 방식으로 번역해야 한다.

[자동차공학]

브레이크(brake)

유압 브레이크(hydraulic brake)

유압 동력 브레이크(hydraulic power brake)/유압 배력 브레이크(hydraulic servo brake)

(2) 용어와 개념 간에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개념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는 일관되게 하나로 번역되어야 한다. 개념이 하나인 원어 용어를 여러 가능성으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정비되기 이전의 의학용어 mesosigmoide~ 에 대한 우리말 번역어를 살펴보면 ‘구불창자’, ‘잘록창자’, ‘에스결장’ 등 여러 형태가 혼재되어 있었다. 그 후 대한의학회에서 이러한 경우 “잘록창자”를 사용하지 않고, “구불창자”로만 표기하기로 하여 일괄 정리하였으므로 결정에 따라 일관되게 용어 번역을 해야 할 것이다.

[의학]

mesosigmoideum 구불창자사이막, 구불창자간막

mesosigmoiditis 잘록창자사이막염, 에스결장간막염 → 구불창자사이막염

mesosigmoidopexy 잘록창자사이막고정술, 에스결장간막고정술 → 구불창자사이막고정술

[자동차공학]

hydraulic brake 액압식 브레이크

air assisted hydraulic brake 공기 유압식 브레이크

반면 원어가 다의어일 경우, 분야에 따라 선택적으로 달리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용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는 여러 분야에서 번역된 block의 예이다.

block

구획, 대량, 지역, 장벽, 블록, 적목, 구역, 板/版, 지괴, -別, 차단, 마취, 저지, 단위, 도르래, 欄, 받침, 폐쇄, 節, 적목의, 개별, 조직, 가구, 반, 압괴, 동시, 억제, 덩어리, 쌓기놀이감, 쌓기놀이, 막다, 저지하다

원어가 다형어인 경우, 굳이 그 개념적 유사성을 보일 필요가 없다면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달리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chromatic의 경우 음악, 미술, 생물학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이들은 동일 개념을 지칭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각각 해당 분야의 전문적 문맥에 맞게 번역하는 것이 좋다.

chromatic

[음악] 반음계의

[미술] 색채의, 채색한

[생물] 염색성의

하지만 다의어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원어가 다의어인 경우도 있으나 원어는 다의어가 아니지만 이를 지칭하는 한국어 단어가 다수 존재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아래 경영학 분야의 executive는 상대적으로 단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경영자, 임원, 중역)이 동의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들이 모두 사용빈도수가 높다면 이의 번역을 통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경영학]

executive compensation	경영자보상
executive development	임원개발
excutive information system	중역정보시스템; 중역의사결정 시스템
executive stock option	경영자 주식옵션

(3) 개념적 정확성을 드러내야 한다.

지금껏 전문용어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개념의 경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의학용어 중 failure와 dysfunction은 모두 '부전(不全)'으로 번역되어 왔다. 두 개념의 차이점을 정확히 명시하기 위해 번역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의학용어집 제5판은 이를 반영하여 failure를 '기능상실' 또는 '부전'으로, dysfunction은 '기능장애' 또는 '장애'로 번역하고 있다.

[의학]

cardiac failure	심부전(증) → 심장기능상실, 심(장)부전
erectile dysfunction	발기부전 → 발기장애

전문용어가 일상어에 쉽게 침투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의미가 넓거나 모호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또한 해석가능성이 많은 용어의 조어도 피해야 한다.

apprentice candidates, pre-school students 동생 (?)

(4) 용어 번역은 체계적이고 일관되어야 한다.

하나의 외래 용어를 번역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개념적 연관성이 있는 다른

용어들의 조어 및 번역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의학]

amnesia	기억상실증
aphasia	언어상실증, 실어증
apraxia	행위상실증, 실행증
aspermia	정액없음증, 무정액증
asthenia	힘없음증, 무력증
amelia	팔다리없음증, 무지증

(5) 용어는 간결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용어는 정보의 최대 저장고이자 정의의 응축물이어야 하지만 실제 용어의 사용자들은 무엇보다도 용어를 간소화하는 데 가장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 물리 분야에서 pressure는 ‘압력’, ‘기압’ 등으로 쓰이지만 복합용어의 구성요소로 사용될 때 ‘압’으로 축약된다.

pressure of radiation	복사압
pressure of light	빛의 압력, 광압
standard pressure	표준(기)압
voltage	전압
working voltage	절연내압
exchange	교환
bill of exchange	환어음

위와 같이 한자어의 축약가능성은 용어의 동기성과 간결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기제이다. 의미를 전혀 해치지 않고도 음절수를 줄일 수 있기에 한자어는 다른 어떤 도구보다도 용어 형성에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더욱이 전문용어에서는 많이 사용되어 고정된 복합 용어에 대해 수식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foreign exchange를 exchange로 또한 우리

말 ‘외환’도 ‘환’으로 사용한다.

foreign exchange exposure 환노출

그러나 이러한 한자어의 속성을 너무 남용할 경우, 전문용어 형성에 고유한 우리말 생성이나 일상어를 바탕으로 한 용어 조어를 등한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용어의 간결성과 의미의 정확성, 투명성은 전문용어 조어의 양날의 칼과 같이 대비되는 속성이어서 경우에 따라 적절히 그 기준을 택해야 할 것이다.²⁴⁾

2) 국어학적 관점에서의 전문 용어 조어 기준

(1) 전문용어는 의사전달 및 지식 전달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체계가 해당 분야의 지식 체계를 반영하는 척도이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정비 및 조어는 해당 분야의 학문적 성립에 기본이 되는 작업이다. 게다가 원어 용어를 자동적으로 음역하는 것은 번역을 포기하는 것이며 전문용어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용어를 음역하면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용어들 또한 토착화의 길이 막히게 된다.

캐스캐이드 → 다단(계)

슬러지 → 찌꺼기

데일리 체크 → 일상 점검

데이터 체크 → 자료 검사

(2) 전문용어는 한자어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개념적 투명성과 간결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용어의 특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 어휘와 너무 많은 괴리감이 있으면 용어의 확산과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24) 여러 종류의 축약어나 화학식과 같은 기호를 이용하는 것은 모두 전문적 의사소통에서 간결성을 추구하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축약의 경향은 비단 전문어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며 일상 언어생활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다. 그러므로 새로 전문용어를 만들 때에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사용되는 친숙한 의미양상을 따라야 하며 어려운 한자어 구성 또는 일본어투 한자어 번역은 피하도록 한다.

소양증(搔癢症) → 가려움증

가피(痂皮) → 딱지

구인(構因) → 구성요인, 구성인자

누두(漏斗) → 깔대기

소둔, 소입, 소려, 소준 → 풀림, 담금질, 되담금(또는 뜨임), 불림

(3) 전문용어에서도 고유의 우리말로 용어를 만들고자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고유어 형태의 용어가 많이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고유어라 해도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형성 방식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무리한 고유어의 고집도 언어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곧창자 → 곧은창자

벤상처 → 베인상처

넓다리 → 넓적다리

단백분해효소 → 단백질분해효소

3) 기타 세부 기준

(1) 형용사 또는 관형형 원어의 음차 또는 번역 기준

(1) 복합 용어에서 원어의 형용사는 가급적 우리말 명사로 옮긴다. 특히 결합하는 단위를 우리말로 옮길 경우 필수적이다.

spanish skirt 스페인 치마

Bayesian estimation 베이지언 추정 → 베イズ 추정

(cf. Bayes theorem 베イズ 정리)

그러나 복합 용어 전체를 음역할 경우, 형용사형 그대로 음역하는 것이 좋다.

french cancan 프렌치 캉캉 (o) 프랑스 캉캉 (?)

전문용어에서 형용사형 음역의 기준이 올바르게 성립되어 있지 않아 다음과 같이 동일한 계열의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명사형과 형용사형이 혼재되어 있으며, 분야 내에서조차 그 음역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치의학	약학
ascorbic acid	아스코르빈산	아스코르브산
oleic acid	올레산	올레인산
acetic acid	아세트산	아세트에시드

‘아스코르브산’, ‘올레산’, ‘아세트산’ 등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바른 표기이다.

(2) <명사+명사>의 구조가 어색한 경우 기능어나 관형형을 이용할 수 있으나 기능어는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

spatial sequence 공간적 연속성 (x) 공간 연속성(o)
 element of spatial structure 공간구조적 요소(x) 공간 구조 요소(o)
 garden cities of tomorrow 내일의 전원도시(o) 내일 전원도시(x)
 shapes of patches 패치의 모양(?) 패치 모양(o)

(2) 원어 용어에서의 붙임표(-) 처리 방안

원어 용어에서의 붙임표는 합성어에서 명사+명사 결합이거나 통사적, 문법적 변형이 있을 때, 동일한 명사를 반복할 때, 로마자가 단독으로 쓰여 명사와 결합될 때, 그리고 하나의 용어 단위로서의 구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어의 붙임표를 한국어에도 그대로 옮기려는 경향이 있으나 기계

적인 전사는 삼가야 한다.

우리말에서는 두 명사가 대등하게 병치되는 경우와 알파벳과 명사가 연결되는 경우, 붙임표 대신 가운데점(·)을 사용할 수 있다. 두 고유명사를 연결하는 경우 가운데점이 있으면 자연스럽다. 두 명사 사이에 대등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나 수식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붙임표는 옮기지 않는 것이 좋다.

(i) 붙임표를 사용한 경우

Chapman-Kolmogorov equation 채프만·콜모고로프 방정식
 cost-volume-profit analysis 비용·양·이익 분석

(ii) 붙임표를 생략하는 경우

chi-squared distribution 카이 제곱 분포
 chance-constrained programming 기회 제약 계획법
 in-plant store 공장내 점포
 cost-efficiency analysis 비용 효익 분석

5. 맺음말

전문 지식과 학문의 국제적 교류가 점점 빈번해져 가고 정보의 공유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대에는 정보와 지식의 단위인 외래 전문용어의 유입 또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문용어의 올바른 번역과 조어가 전문 지식의 토착화와 정보의 습득 및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고 우리말 전문용어 번역과 조어에 대한 기본 지침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번역 및 조어 지침은 번역학적 유형론뿐만 아니라 용어학적 원리를 함께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ISO의 제안 사항을 살펴본 후 이를 우리말 전문용어의 현실에 맞게끔 기준을 세워보고자 하였다. 다만 전문용어의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번역 절차에 치중하다보니, 소수이지만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는 보다 창의적인 방식의 전문용어의 조어 사례와 절차를 충분히 논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차후의 연구 주제로 남겨두어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고석주, 이현주 외 (2007) 『전문 용어 연구. 정리 현황과 과제』 국립국어원 자료총서 4, 태학사.
- 국립국어연구원(1995) 『국어학의 번역 술어 연구』
- 국립국어연구원(1996) 『국어학의 번역 술어 연구 (II)』
- 국립국어원 (2006) 『전문용어 정리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국립국어원 (2007) 『외래 전문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
- 국립국어원 (2009) 『전문 용어 정비 지침』.
- 김정우(2000) 「언어학 술어 번역의 체계화 문제」, 『번역학 연구』제1권 2호, 한국번역학회.
- 김정우(2003) 「자연과학 텍스트의 번역 방법론 시론」, 『번역학 연구』제4권 1호, 한국번역학회.
- 김정우(2005)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 연구』제6권 2호, 한국번역학회.
- 김창섭 (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국어학회, 태학사.
- 노명희 (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국어학회, 태학사.
- 딜러 & 코르넬리우스 (2003) 『번역의 언어학적 문제』, 지광신 외 역, 한국문화사.
- 배선미·시정곤(2004) 「한국어 전문용어 조어분석에 대한 통계적 연구」, 『한국어학』25권.
- 이현주 (2007) 『외래 전문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 국립국어원, 학술단체총연합회.
- 이현주, 조동성 (2011)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한국어 의미학』 35권, 한국어 의미학회.
- 임동훈 (2007) 「국어학 번역 술어의 현황과 술어 번역의 기준」, 『인문학연구』13집.
- 최기선 외 (2004~06)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국립국어원.
- 최기선 (2007) 「전문 용어의 표준화」, 『새국어생활』 제17권 1호, 국립국어원.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2007)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 제3차 공청회 자료집』.
- Arntz, R. (1993) "Terminological Equivalence and Translation", in H. Sonneveld & K. Loening, *Terminology. Applications in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Boisson, C. & Thoiron, P. *Autour de la dénomination*, PUL, Lyon.
- Depecker, L. (2001) *L'invention de la langue. Le choix des mots nouveaux*, Armand Colin, Paris.
- ISO (2009) ISO 704 : *Travail terminologique-Principes et méthodes. Terminological*

work-Principles and methods, ISO.

Rondeau, G. (1984) *Introduction à la terminologie*, Gaetan morin éditeur, Québec.

Sager, J. (1990) *A Practical Course in Terminology Process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Wright, S. & Budin, G. (1997) *Hqndbook of Terminology Management* vol.1,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 Philadelphia.

❖ ABSTRACT

Essay on Terminology Formation and Translation Methodology in Korean

LEE, Hyunjoo

In this knowledge based society, the circul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more and more increasing. Terms, as denominations of every specialized concept, has grown in quantity and there are considerable amount of foreign terminology coming to settle down in Korean language. Since terminologies quickly generate and be extinguished, it is important to translate in appropriate way at the very first phase of terminology implementation. This article aims to elaborate the typology of korean terminology translation forms, and propose some guidelines for terminology formation and translation methodology. ISO terminology principle and other institutes' propositions for term formation as well as translational theories constitute two basic columns of the guidelines.

Key Words

전문용어, 번역, 조어, 국제표준기구, 투명성, 일관성, 간결성, 직역, 의역
terminology, translation, term formation, ISO, transparency, coherence, linguistic
economy, literal translation, paraphrase

논문접수일: 2013. 05. 10.

심사완료일: 2013. 06. 02.

게재확정일: 2013. 06. 07.